

뜨거웠던 ‘PLCC 출시 경쟁’ 점점 식어가네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

2021년 55종… 올해에는 2개뿐, 왜?

공격적 확장으로 시장은 ‘포화’ 상태
경기불황에 특정 브랜드 충성심 줄고
소비심리 위축돼 범용성에 관심 집중
사업성 높지 않아 카드사들 ‘소극적’

한때 카드사들이 유행처럼 선보였던 PLCC(상업자 전용 신용카드)의 신상품 출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몇년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제휴처가 남지 않은 데다 소비 환경과 카드사들의 경영 환경이 변하면서 PLCC를 새롭게 출시할 이유가 줄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에서 올해 들어 새롭게 출시된 PLCC는 2개다. 카드사들의 신규 PLCC 출시 규모는 2021년 55종에서 ▲2022년 21종 ▲2023년 상반기 9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대부분의 카드사가 PLCC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PLCC는 제휴를 맺은 특정 브랜드에 집중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카드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적인 대신 해당 제휴처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보통 1개 카드사가 1개 제휴사와 단독 계약을 맺고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은 양사가 공동부담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마케팅 비용으로 제휴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PLCC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PLCC 출시에 나서면서 더이상 제휴를 맺을 브랜드가 남지 않은 것. 지난해까지 카드사들은 국내 유통업계는 물론,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맺고 PLCC를 연이어 내놓았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

다. 고물가 시기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은 혜택의 범용성이 높은 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인기가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는 음식점·통신·간편결제 등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카드의 ‘마이 위시(My WE:SH)카드’였다.

조달비용 증가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PLCC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사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은 편인 PLCC를 적극적으로 출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PLCC는 대체로 수익을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올해에도 안 좋은 영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새로운 PLCC를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PLCC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조달비용도 많이 올라 PLCC를 쓸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PLCC가 나올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현술 기자

1분기 영업이익 2조 8860억… SK하이닉스 높게 날았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2조 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플래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영향이다.

SK하이닉스는 25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3조 423억 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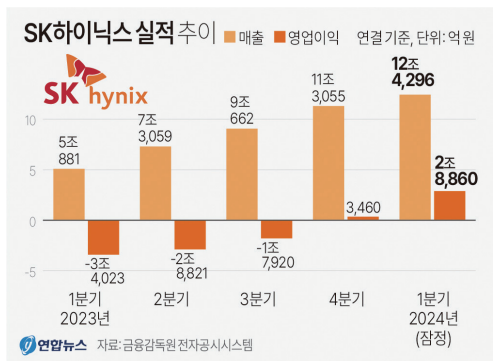
매출은 12조 4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했다. 역대 1분기 매출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순이익도 1조 917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은 23%, 순이익률은 15%다.

SK하이닉스 측은 “HBM 등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는 한편, 수익성 증진 경영을 지속한 결과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34% 증가했다”며 “낸드 역시 프리미엄 제품인 eSSD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D램 수요도 회복되면서 올해 메모리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SK하이닉스의 전망이다. 또한 일반 D램보다 큰 생산능력(캐파)이 요구

매출 12.4조 원으로 1Q 역대 ‘최대’
HBM 수요 늘고 낸드 흑자 전환 영향

“고객 수요 증가 추세 따라 투자 확대
AI 메모리 생산능력 늘려나갈 계획”



되는 HBM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생산이 늘어나면서 범용 D램 공급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공급사와 고객이 보유한 재고도 소진될 것으로 봤다.

이에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맞춰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3E 공급을 늘리고 고객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나노 5세대(1b) 기반 32Gb(기가비트) DDR5 제품을 연내 출시해 고용량 서버 D램 시장 주도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낸드의 경우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제품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보유한 고성능 16채널 eSSD와 함께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QLC(쿼드러블 레셀 셀) 기반 고용량 eSSD 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것. AI용 PC에 들어가는 PCIe 5세대 cSSD를 작기에 출시해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투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고객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HBM뿐 아니라 일반 D램 공급도 시장 수요에 맞춰 적절히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팜(공장)인 청주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할 데 따라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 등 미래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CFO(부사장)는 “HBM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1위 AI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등세를 본격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고 성능 제품 적기 공급,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로 실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현술 기자

근로자 용기가 만든 안전 신화 ‘작업중지권’



기자의 창(窓)

오다경 경제부 기자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근본적인 가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작업중지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권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7%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안전교육의 내용 개선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업중지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69%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답한 반면, 21%의 응답자는 작업중지로 인한 현장의 손실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작업중지가 시행된 경우 해결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13%만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답한 반면, 44%는 작업 중단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현장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요청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중지 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더불어,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현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을 필두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꺼렸던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30만 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됐고, 휴업재해를

은 매년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타건설사와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더욱 놀랍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2위인 현대건설은 2021년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총 1만 4045건의 작업중지 및 개선 요청이 이뤄졌으며, 다른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작업중지권 연간 보장 건수는 천 단위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이 다른 대형건설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달성한 비결은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 일상화’의 문화 조성이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전해주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3년 동안 총 13개 업체, 391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관련 비용을 정산 과정에서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총 2만 2648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00건 이상 중복해서 활용한 근로자도 21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597건으로 나타났으며 511건이 뒤를 이었다.

3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작업중지권의 보장되며 공기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삼성물산은 늘어난 공기에 대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기대처가 중요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작업중지권을 행사되는걸 당연시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실제로 30만 건 중에 거의 90% 이상은 1-2분 내에 작업이 재개되는 상황이라 공기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사례는 건설 현장 안전 문화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며,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삼성물산의 노력은 다른 건설사들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력’

경기중기청, 제4차 ‘지원협의회’ 개최
지역특화 ‘레전드 50+’ 추진상황 점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25일 경기중기청사에서 제4차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지역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협의회에서는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지역 내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체서 추진하는 ‘레전드 50+’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뿌리산업(금형, 용접)과 미래차 등 2개 분야에 선정돼 총 13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책자금, 혁신바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정책 수단(5개 지원 사업)이 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제4차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원된다.

미래차 분야 주관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기업별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매칭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십 사업에 경기관을 운영해 일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분야 주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기부 지원 사업 이외에 ‘경기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경기 뿌리산업

레전드 50+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일본 제조현장 혁신연수단 경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레전드 50+ 지원 예산 규모는 미래차 분야 45억 7000만 원, 뿌리산업 분야 224억 4000만 원 등 총 270억 1000만 원이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3개 지방청(경기청, 서울청, 대구경북청)에서 시범 추진하는 지방청 R&D 사업에 레전드 50+ 참여 기업이 지원할 경우 우대(가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다경 기자



제24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후원금 전달식.

LH 제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

LH 경기북부, 조계종 복지재단과 협약
기부금 전달하고 치료비 분담하기로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난 24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희귀난치병의 경우 과중한 의료비와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간병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분리, 치료 중단 등 투병 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LH는 2001년부터 24년째 국내·외의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과 치료비 지원

을 하고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희귀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이날 LH는 조계사에서 열린 제24회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행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추후 입주민 중 대상자가 선정되면 LH 기부금(50%)과 조계종 지원금(50%)의 합산액을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철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다”며 “어린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다경 기자